

농구의 계절이 돌아왔다

KBL 컵대회 내일 개막...8일까지 9일간 '바스켓 열전'



'2022 KBL 국내 신인 선수 드래프트'에서 LG가 1순위로 선택한 양준석(오른쪽)과 조상현 감독.



프로농구 '고양 캐롯 점퍼스' 창단식에서 포부를 밝히는 허재 대표. /연합뉴스

15일 개막하는 정규리그 앞두고 팀 전력들 미리 확인하는 무대 '농구 대통령' 허재 대표이사 맡은 신생팀 '캐롯' 다크호스 '주목'

2022 MG 새마을금고 KBL 컵대회가 10월 1-8일까지 경남 통영체육관에서 개막해 9일간 '농구 열전'을 펼친다.

3회째를 맞는 이번 대회는 10월 15일 2022-2023시즌 정규리그에 앞서 각 팀의 전력을 미리 확인하는 장이 될 전망이다.

프로 10개 구단과 상무까지 11개 팀이 4개 조로 나뉘어 조별리그를 벌인 뒤 각 조 1위가 4강에 올라 토너먼트로 우승팀을 정한다.

오리온 농구단을 인수한 데이원스포츠가 출범한 신생팀 고양 캐롯 점퍼스는 이번 대회를 통해 공식전을 치른다.

'농구 대통령' 허재 전 국가대표팀이 대표이사를 맡은 캐롯은 최근 좋은 성과를 냈던 안양 KGC 인삼공사의 김승기 감독을 사령탑으로 데려왔다.

그러나 자유계약(FA)으로 김 감독을 따라 합류한 '최고 슈터' 전성현(31)을 비롯해 차세대 가드로 꼽히는 이정현(23) 등이 있는 전력에 마냥 무르지만은 않다.

다크호스이자 신생팀인 캐롯은 A조에 전 시즌 우승팀 서울 SK, 서울 삼성과 조 1위를 위해 경쟁한다.

FA 최대어 허웅(29)과 이승현(30)을 품으며 골밑과 외곽을 동시에 국내 최고 선수로 보강한 전

주 KCC가 선보일 경기력에도 팬들의 관심이 쏠린다.

KCC는 B조에 속해 원주 DB, 수원 kt와 맞붙는다.

이외 C조에서는 창원 LG, 상무, 인삼공사가 경쟁한다.

D조는 국가대표 가드 이대성(32)을 데려온 대구 한국가스공사와 울산 현대모비스로 짜였다.

각 팀이 모두 2명의 외국인 선수와 계약을 마친 만큼 이번 대회에서는 사실상 '완전체' 전력으로 맞붙는다.

새 얼굴 중 한국가스공사가 합류한 세네갈 국가대표팀 주장 유스 은도에(213cm)와 KCC의 론데 홀리스제퍼슨(201cm)이 기대를 모은다.

2020년까지 미국프로농구(NBA)에 뛴 홀리스제퍼슨은 활동량, 기동력, 운동능력을 앞세운 돌파와 NBA에서 스타들을 전담해 막던 수비력이 장점으로 꼽힌다.

아울러 아시아쿼터 제도도 합류한 필리핀 선수들도 국내 팬들 앞에서 기량을 뽐낼 예정이다.

현대모비스의 론 제이 아바리엔토스(23), 한국가스공사의 샘조세프 벨란젤(23), DB의 이선 알바노(26) 등 가드들이 개인기량을 앞세워 국내 가드와 경쟁을 펼친다. /연합뉴스

광주시장애인체육회

한상득 수석부회장 취임



체육회 임직원, 종목별 가맹단체장, 장애인단체장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한상득(사진) 제5대 광주시장애인체육회 수석 부회장이 지난 28일 광주시장애인국민체육센터에서 취임식을 열고 업무를 시작했다.

한 부회장은 취임사에서 "장애인 선수 출신으로서 장애인 전문체육, 생활체육, 학교체육의 활성화를 통해 광주시장애인체육회의 새로운 변화를 이끌어내 장애인 체육인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제42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에서 광주 선수들이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

다"고 밝혔다.

한 부회장은 북구 장애인체육회상임부회장, 북구 장애인복지회이사장, 광주보훈체육회 회장을 역임한 장애인체육 전문가다.

한편, 취임식에는 광주시의회 서용규, 심장욱 의원을 비롯하여 시·구 장애인체육회 임직원, 종목별 가맹단체장, 장애인단체장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29일 전남도체육회관 다목적체육관에서 제103회 전국체육대회 전남 선수단 결단식이 열렸다. 선수·임원 등이 선전을 다짐하고 있다. <전남도체육회 제공>

"필승 다짐합니다" 전국체전 전남선수단 결단식

전남선수단이 제103회 전국체육대회를 앞두고 필승을 다짐했다.

전남도체육회(회장직무대행 최기동)는 29일 전남도체육회관 1층 다목적체육관에서 제103회 전국체육대회 전남 선수단 결단식을 개최했다.

김영록 전남도지사, 서동욱 전남도의회 의장, 김대중 전남도교육감, 최기동 전남체육회장직무대행을 비롯한 종목단체 관계자, 임원 및 선수 등 300여명이 참석했다.

전남 선수단은 모두 47개 종목, 선수 1137명으로 꾸러졌다.

종목을 대표하는 스타 선수들과 유망주들이 대거 출전해 메달밭을 일굴 것으로 기대된다.

2021년 세계무대를 평정한 근대5종의 서창완

(전남도청), 양궁 국가대표 최미선(순천시청), 도교육청립 북산 국가대표 임애지(화순군청), 국제대회 2연패, 베드민턴 국가대표 정나은과 단식최강자 전주이(이상 화순군청) 등이 메달 유력 후보다.

도교육청립 유도 국가대표 박다솔(순천시청), 육상 해머던지기 1인자 박서진(목포시청)과 세단뛰기 기대주 김장우(장흥군청), 펜싱국가대표 김재원(해남군청) 등도 전국 정상을 노린다.

최근 세계주니어선수권 금메달을 획득한 자전거의 김태연(전남체고 3년), 육상 샷별 배건울(전남체고 2년), 양예빈(전남체고 3년), 이은빈(전남체고 1년), 지난 제102회 전국체육대회 3관왕을 달성한 역도 조민재(전남체고 3년), 톨러 유니버 국가대표 이유진(여수충무고 3년) 등 유망주

도 출전한다. 이날 결단식에서는 광주은행, NH농협, 대한전 문건설협회 전남도회, 대한건설협회 전남도회 등 6 기관단체에서 체육진흥금을 기탁, 전라남도 와 전라남도의회가 격려금을 전달하며 선수단을 응원했다.

최기동 회장직무대행은 "3년만에 정상개최되는 제103회 전국체육대회에서 그 누구보다 젊은 땀방울을 흘리며 대회를 준비한 만큼 후회없는 경기를 펼쳐, 좋은 성과 거두길 바라고, 전남을 대표하는 만큼 자긍심과 자부심을 갖고 부상 없이 최선을 다해주기 바란다"며 "선수들이 최상의 컨디션 유지하고 경기력을 발휘하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전남도청 최세빈 '금빛 찌르기'

전국체전 사전경기 여자 일반부 사브르 개인전 우승

전남도청 최세빈이 사전경기로 열린 제103회 전국체육대회에서 정상을 올랐다.

최세빈은 29일 울산 동천체육관에서 열린 대회 여자 일반부 사브르 개인전 결승에서 윤지수(서울시청)를 15-14로 따돌리고 우승을 차지했다.

최세빈은 준결승에서도 15-14, 1점 차로 양예솔(인천중구청)을 따돌리고 극적으로 결승에 진출했다.

한국 펜싱 남자 사브르의 간판 오상욱(대전광역시청)은 남자 일반부 사브르 개인전에 대한 대표로 나서서 우승을 차지했다.

오상욱은 2019년 열린 제100회 대회 때 성남시청 소속으로 경기도 대표로 출전해 금메달을 목에 건 데 이어 전국체전에서 열린 남자 일반부 사브르 개인전 2회 연속 우승을 달성했다.

2020년 제101회 전국체전은 코로나19 여파로 열리지 않았고, 코로나19 확산 우려가 이어진 지난해 제102회 대회는 고등부 경기만 개최된 바 있다.

이날 오상욱은 준결승에서 대표팀 선배인 구본길(국민체육진흥공단·서울)을 15-10으로 물리친 데 이어 결승전에서는 하한솔(성남시청·경기)을 15-12로 제압하고 우승을 일궜다.

남자 사브르 세계랭킹 3위로 한국 선수 중 가장 높은 오상욱은 이날 17일 국가대표 선수 선발대회에 이어 국내대회 연속 우승의 기쁨도 누렸다.

여자 에페에서는 개인 세계랭킹 1위 최인정(계룡시청·충남)이 정상에 오른 가운데 올해 세계선수권대회 2관왕 송세라(부산광역시청·부산)는 동메달을 따냈다.



전남도청 최세빈

남자 에페에서는 권영준(익산시청·전북)이 1위에 올랐고, 박상영(울산광역시청·울산)은 3위에 자리했다.

남녀 플리데에서는 하태규(대전도지사청·대전)와 채승오(충북도청·충북)가 각각 우승했다.

올해 전국체육대회는 다음 달 7일부터 13일까지 울산광역시 일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펜싱은 이 기간 쿠웨이트에서 예정된 23세 이하 아시아선수권대회 참가 관계로 다음 달 3일까지 사전경기로 진행된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제1회 남구청장배 양궁대회 내일 열린다

전국 학생·클럽선수 130여명 참가

제1회 남구청장배 양궁대회가 다음달 1일 광주 국제양궁장에서 개최된다.

2025 광주 세계양궁선수권대회 홍보를 겸해 남구청이 주최하고, 남구체육회·광주시양궁협회·한국생활체육연맹이 주관하는 이번 대회에는 광주 여대 스포츠클럽, 행복남구 스포츠클럽, 광주다움

스포츠클럽, 광주거점 스포츠클럽을 비롯해 전국에서 130여명이 참가한다.

남구청장배 대회 사상 첫 전국대회로 열리는 대회는 초등 저학년부·초등 고학년부, 리커브 일반초보부, 리커브 중급부, 리커브 상급부, 청소년 컴파운드부, 리커브 선수부, 컴파운드 초보부, 컴파운드 일반부, 컴파운드 선수부로 나뉘어 진행된다.

김병내 남구청장은 "남구청장배 최초로 전국대

회로 열리는 만큼 대회가 갖는 의미가 크다. 1회 대회를 성공적으로 치러내 2, 3회 대회는 참가 선수, 종목 다양화 등 명실상부한 전국대회로 자리매김하길 바란다"며 "남구는 2025 세계양궁선수권이 열리는 국제양궁장을 활용한 다양한 스포츠 마케팅에 매진, 양궁 중심도시로서의 역할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청장은 이어 "양궁 저변확대를 통해 2025 세계양궁선수권대회가 역대 최고의 성공적인 대회가 될 수 있도록 남구가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LOTTE CINEMA | 총장로관

단체 및 대관문의 1544-8855

1관	정직한 후보2
2관	정직한 후보2
3관	정직한 후보2
4관	공조2: 인터내셔널
5관	인생은 아름다워
6관	인생은 아름다워
9관	인생은 아름다워, 애프터: 에버 해피, 극장판 정구는 못말려: 수수께끼! 꽃피는 천하떡갈나무
7관 씨네마	극장판 헬로카봇: 수상한 마술단의 비밀, 늑대사냥, 극장판 정구는 못말려: 수수께끼! 꽃피는 천하떡갈나무
8관 씨네마	공조2: 인터내셔널, 늑대사냥: 육사오(6/45), 극장판 헬로카봇: 수상한 마술단의 비밀

광주문화예술회관 문의 062)613-8353

TRIO OWON

GAC기획·포시즌 실내악시리즈 ③

트리오 오원

일시: 2022. 10. 17.(월) 19:30

장소: 광주광역시청 대회의실

문의: 062-613-8235

가을 저편

광주시립합창단 제190회 정기연주회

가을저편

일시: 2022. 10. 12.(수) 19:30

장소: 빛고을시민회관

문의: 062-613-8245